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어린이집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박 현 주* (전북대학교)

〈 요약 〉

본 연구는 어린이집 부모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참여방법 및 내용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D시와 S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어머니 209명이며, 연구의 목적을 위해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은 연령별 영·유아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획득을 위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올바른 훈육방법과 부모의 역할을 잘 모를 때 자녀양육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들이 바라는 부모교육의 적절한 횟수는 1년에 1-2번이었고, 선호하는 부모교육 유형은 전문가 초청 특강이었으며, 선호하는 강사는 부모교육 전문가로 나타났다. 또 선호하는 부모교육 외부기관으로 지원센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셋째, 부모교육 내용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및 훈육방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모의 감정 통제 및 일관된 훈육태도, 영·유아기 양육에 관한 지식, 자녀와 대화를 잘 하는 방법, 영·유아의 사회 및 정서 발달 등에 대한 것들이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길 원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주제어: 어린이집, 부모교육, 부모요구

※ 논문 접수: 2021. 06. 30 / 수정본 접수: 2021. 08. 01 / 게재 승인: 2021. 08. 13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교신저자: wolf-park@hanmail.net

I. 서론

부모는 자녀에게 첫 번째이자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는 교사이다. 부모는 자녀의 전형적인 발달 과정에서 자녀의 언어뿐만 아니라 인지, 사회, 정서 등 모든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영·유아기에 형성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후 자녀의 인간관계는 물론 모든 발달의 근간이 되며, 특히 어머니는 어린 영·유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이루어진 유아교육 발전과 함께 바람직한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생활양식에 알맞은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요구도 다양해졌다(이원영, 배소연, 2000). 또한 2008년부터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와 보육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나아가 지성애(2016)는 빠른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국가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부모교육 관련 연구들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내용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역할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들이다(고경필, 2017; 이완희, 최양미, 2009). 부모교육 관련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부모 자신의 역할 수행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부모의 양육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자녀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주요 요인이다.

양육효능감이란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가치 있는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부모의 믿음을 말한다(Bandura, 200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다룬 국내연구(도미향, 2016; 방은주, 2018)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지식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 능력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으며,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발달수준에 대해 매우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이영은, 이경화, 2013),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관의 결여로 인해 놀이와 교육의 딜레마를 겪기도 한다(김주연, 2019). 이렇게 영·유아 발달 수준에 대한 이해나 놀이의 이해 및 방법 등과 같은 양육지식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발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 부모는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문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강압적인 훈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양수영, 2019).

한편, 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부모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양육에 대한 지식에 접근하는가이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들을 가족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 얻거나, TV나 라디오 같은 방송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얻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옥경, 최인화, 2013). 이렇게 방송이나 상업적인 교육 자료 등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넘쳐나는 정보들에 부모가 휩쓸리지 않도록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교육의 내용은 부모 개인의 성장은 물론 연령에 적합한 영·유아 발달 기술과 발달 이정표에 대한 학습,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 촉진과 놀이방법,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의 접근성과 같은 양육 관행과 행동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Harrison & Vliet, 2013).

그러나 부모교육은 강제성이 없기에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그 어떤 양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해도 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저조한 참여율과 함께 부모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박수진, 이경희, 조미경, 권이정, 2018)에 의하면 영·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부모와 기관장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했다. 또 김주연(2019)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모교육 방법은 부모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부모의 참여율 증진을 위해서라도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다. 부모교육의 효과는 부모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교육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연스럽게 연대를 이루어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교육관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러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마련 차원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에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셋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D시와 S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05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05)

	구분	N	%
연령	25세 이하	12	5.9
	26세-30세	26	12.7
	31세-35세	75	36.6
	36세-40세	76	37.1
	41세 이상	16	7.8
학력	고졸	26	12.7
	전문대졸	38	18.5
	대졸	115	56.1
	대학원졸	26	12.7
직업	전업주부	117	57.1
	사무직	32	15.6
	전문직	39	19.0
	판매, 서비스직	7	3.4
	기타	10	4.9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연령은 '36~40세'가 37.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1~35세(36.6%)', '26~30세(12.7%)', '41세 이상(7.8%)', '25세 이하(5.9%)'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56.1%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18.5%)', '고졸(12.7%)', '대학원졸(12.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57.1%는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고, '전문직(19.0%)', '사무직(15.6%)', '판매, 서비스직(3.4%)'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 현황과 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한 요구를 알아

보기 위해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김정주, 이미영, 이현옥(2013)과 박수진 외(2018)의 연구에 사용된 부모교육 설문지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20문항을 제작했다. 이후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어린이집 원장 1인, 보육교사 1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비슷하여 중복되는 문항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문항과 답변하기 애매하여 부모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문항은 제외되었다. 최종 설문지는 부모교육 참여 현황(5문항), 부모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5문항),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6문항) 등 모두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5이다.

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2020년 4월에 시작하여 2020년 10월에 자료 수집이 마무리되었다. 4월 한 달 동안 설문지 제작기간을 거쳤으며,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연구자가 부모교육 및 교사교육 특강을 의뢰받았던 어린이집 5군데에서 5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지 배포를 위해 본 연구자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였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설문지는 어린이집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임을 알리는 가정 통신문과 함께 아이들을 통해 가정의 부모에게 전달되었다. 설문지 작성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총 3-4차례에 걸쳐 가정 통신문과 전화, 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총 287부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응답, 기초 정보 기입이 누락된 설문지 82부를 제외한 205부만을 최종 분석처리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9.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부모의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 부모가 바라는 부모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했다. 또 부모가 바라는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반응 변수군 설정 후 빈도 분석을 실시한 다음 순위를 매겼다.

III. 연구결과

1.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

구분	N	%	순위
연령에 따른 영유아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	199	32.4	1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획득	182	29.6	2
가정-어린이집의 연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	157	25.6	3
부모의 자아실현 및 정보 획득	76	12.4	4
전체 (중복응답)	614	100	

어머니들이 선택한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 1순위는 ‘연령에 따른 영유아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32.4%)’였으며, 다음으로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획득(29.6%)’, ‘가정-어린이집의 연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25.6%)’, ‘부모의 자아실현 및 정보 획득(1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자녀 양육이 가장 어려울 때

구분	N	%	순위
올바른 훈육방법 및 부모의 역할을 모를 때	189	31.0	1
아이의 욕구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	176	28.9	2
아이가 심하게 다치거나 아플 때	113	18.6	3
아이와 함께 노는 방법을 모를 때	93	15.3	4
아이가 잠을 자지 않을 때	38	6.2	5
전체 (중복응답)	609	100	

자녀 양육이 가장 어려울 때는 언제나는 질문에 대한 어머니들의 응답 1순위는 ‘올바른 훈육 방법 및 부모의 역할을 모를 때(31.0%)’였고, 다음으로 ‘아이의 욕구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28.9%)’, ‘아이가 심하게 다치거나 아플 때(18.6%)’, ‘아이와 함께 노는 방법을 모를 때(15.3%)’, ‘아이가 잠을 자지 않을 때(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자녀 양육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

구분	N	%	순위
전문가의 조언 (의사, 교사, 상담가 등)	168	27.5	1
부모, 친척, 친구, 이웃의 조언	156	25.5	2
육아 관련 도서	107	17.5	3
미디어매체 (인터넷, TV, 라디오 등)	101	16.5	4
어린이집 부모교육 프로그램	79	12.9	5
전체 (중복응답)	611	100	

어머니들이 자녀양육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 1순위는 '전문가의 조언(27.5%)'이었고, 다음으로 '부모, 친척, 친구, 이웃의 조언(25.5%)', '육아 관련 도서(17.5%)', '미디어매체(16.5%)', '어린이집 부모교육 프로그램(1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경험했던 부모교육 유형

구분	N	%	순위
어린이집 교사와의 학부모 상담	160	33.7	1
부모참여 프로그램 및 참관수업	134	28.2	2
전문가 초청 특강 (부모교육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94	19.8	3
인쇄매체의 전달 (책자, 가정 통신문 등)	87	18.3	4
전체 (중복응답)	475	100	

어머니들이 경험했던 부모교육의 유형 1순위는 '어린이집 교사와의 학부모 상담(33.7%)'이었고, 다음으로 '부모참여 프로그램 및 참관수업(28.2%)', '전문가 초청 특강(19.8%)', '인쇄매체의 전달(1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모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

구분	N	%	순위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놀이방법	145	29.9	1
바람직한 부모역할 및 훈육방법	130	26.8	2
자녀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	111	22.9	3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	94	19.4	4
기타	5	1.0	5
전체 (중복응답)	485	100	

어머니들이 부모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 1순위는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놀이방법 (29.9%)’이었고, 다음으로 ‘바람직한 부모역할 및 훈육방법(26.8%)’, ‘자녀의 건강 및 영양, 안전관리(22.9%)’,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19.4%)’, ‘기타(1.0%)’ 순으로 나타났다.

2. 부모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

영·유아 부모들의 부모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를 알아본 결과 다음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 부모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 N=205

		구분	N	%
적절한 부모교육 횟수		1년에 1-2회	98	47.8
		한 학기에 1-2회	93	45.4
		한 학기에 3회 이상	14	6.8
선호하는 부모교육 참여형태		오프라인 교육	102	49.8
		온라인 교육	28	13.7
		오프라인 + 온라인 교육	75	36.6
선호하는 부모교육 유형		전문가 초청 특강	93	45.4
		부모참여 프로그램 및 참관수업	63	30.7
		교사와의 면담	35	17.1
		부모 간의 토의 및 토론	7	3.4
		무응답	4	2.0
		인쇄매체 전달	3	1.5
선호하는 부모교육 강사		부모교육 전문가	145	70.7
		특정분야 전문가	16	7.8
		원장, 원감	14	6.8
		담임교사	30	14.6
선호하는 부모교육 외부기관		지자체	66	32.2
		지원센터	98	47.8
		사설 부모교육기관	31	15.1
		직장 및 일반 기업	9	4.4
		기타	1	.5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부모교육의 횟수는 ‘1년에 1-2회’라는 답변이 47.8%로 가장 많았고, 선호하는 부모교육 참여형태로는 ‘오프라인 교육’이 49.8%로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부모교육 유형으로는 ‘전문가 초청 특강’이 45.4%로 가장 많았고, 선호하는 부모교육 강사로는 ‘부모교육 전문가’가 70.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선호하는 부모교육 외부기관으로는

‘지원센터’라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3. 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한 요구

영·유아 부모들이 바라는 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부모교육 내용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구분	N	%	순위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및 훈육방법	179	29.9	1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놀이방법	176	29.4	2
자녀의 건강 및 영양, 안전관리	91	15.2	3
부모로서의 자질 향상에 관한 내용	85	14.2	4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	68	11.4	5
전체 (중복응답)	599	100	

<표 8>에 의하면 어머니들이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및 훈육방법(29.9%)’과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놀이방법(29.4%)’이었고, 다음으로 ‘자녀의 건강 및 영양, 안전관리(15.2%)’, 부모로서의 자질 향상에 관한 내용(14.2%),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11.4%)’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요구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9> 바람직한 부모 역할 및 훈육방법에서 알고 싶은 내용

구분	N	%	순위
부모의 감정 통제 및 일관된 훈육태도	131	21.7	1
바람직한 생활지도 방법	128	21.2	2
나쁜 행동 및 습관에 대한 지도방법	126	20.9	3
자녀를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방법	125	20.7	4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	94	15.6	5
전체 (중복응답)	604	100	

어머니들이 바람직한 부모 역할 및 훈육방법에서 가장 많이 알고 싶은 것으로 선택한 것은 ‘부모의 감정 통제 및 일관된 양육태도(21.7%)’였고, 다음으로 ‘바람직한 생활지도 방법(21.2%)’, ‘나쁜 행동 및 습관에 대한 지도방법(20.9%)’, ‘자녀를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방법(20.7%)’,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2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놀이방법에서 알고 싶은 내용

구분	N	%	순위
자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방법	155	25.6	1
경청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방법	146	24.1	2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부모가 말하는 방법	117	19.3	3
적절한 놀잇감 제공 및 자녀와 놀아주는 방법	107	17.7	4
적절한 책 선정 및 동화 들려주는 방법	81	13.4	5
전체 (중복응답)	606	100	

어머니들이 의사소통 및 놀이방법에서 가장 많이 알고 싶은 것으로 선택한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방법(25.6%)’이었고, 다음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방법(24.1%)’,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부모가 말하는 방법(19.3%)’, ‘적절한 놀잇감 제공 및 자녀와 놀아주는 방법(17.7%)’, ‘적절한 책 선정 및 동화 들려주는 방법(1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자녀의 건강 및 영양, 안전관리에서 알고 싶은 내용

구분	N	%	순위
안전사고와 응급처치	161	26.7	1
영·유아기 질병 및 간호방법	147	24.4	2
영·유아기 양육에 관한 지식	127	21.1	3
영·유아기 건강 진단 및 예방접종	84	13.9	4
영·유아기 영양관리	84	13.9	5
전체 (중복응답)	604	100	

어머니들이 자녀의 건강 및 영양, 건강관리에서 가장 많이 알고 싶은 것으로 선택한 것은 ‘안전사고와 응급처치(26.7%)’이었고, 다음으로 ‘영·유아기 질병 및 간호방법(24.7%)’, ‘영·유아기 양육에 관한 지식(21.1%)’, ‘영·유아기 건강 진단 및 예방접종(13.9%)’, ‘영·유아기 영양관리(1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부모로서의 자질 향상에 관해 알고 싶은 내용

구분	N	%	순위
자녀와 대화를 잘 하는 방법	170	28.0	1
좋은 부모에 대한 가치관 확립	163	26.8	2
잘못된 양육방법 진단 및 교정	159	26.2	3
양육 죄책감 및 스트레스 해소법	66	10.9	4
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이견 좁히기	50	8.2	5
전체 (중복응답)	608	100	

어머니들이 부모로서의 자질 향상에서 가장 많이 알고 싶은 것으로 선택한 것은 ‘자녀와 대화를 잘하는 방법(28.0%)’이었고, 다음으로 ‘좋은 부모에 대한 가치관 확립(26.8%)’, ‘잘못된 양육방법 진단 및 교정(26.2%)’, ‘양육 죄책감 및 스트레스 해소법(10.9%)’, ‘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이견 좁히기(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론에서 알고 싶은 내용

구분	N	%	순위
사회 및 정서 발달	193	32.0	1
인지 발달 및 지능	119	19.7	2
창의성 발달	118	19.5	3
언어 발달	94	15.6	4
신체 발달	80	13.2	5
전체 (중복응답)	604	100	

어머니들이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론에서 가장 많이 알고 싶은 것으로 선택한 것은 ‘사회 및 정서 발달(32.0%)’이었고, 다음으로 ‘인지 발달 및 지능(19.7%)’, ‘창의성 발달(19.5%)’, ‘언어 발달(15.6%)’, ‘신체 발달(13.2%)’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

어머니들은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연령별 영·유아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획득이라고 응답했다.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양육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높다. 달리 말하면 결혼과 부모가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최소한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러한 사전교육 없이 부모가 되고, 양육 과정에서 조부모,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양육에 대한 팁을 얻거나, 육아 관련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부모들이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 영·유아 발달 추이나 연령에 적합한 발달적 자극방법에 대해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자녀 양육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나냐는 질문에 올바른 훈육방법과 부모의 역할을 잘 모를 때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자녀의 욕구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두 가지 모두 기본적으로 영·유아의 발달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할 때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이다(양수영, 2019).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2순위는 부모, 친척, 친구, 이웃 등 주로 주변인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배지희, 이유희, 임미선, 2015; 이주연, 이석호, 2010)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내용이다.

이는 많은 부모들이 양육정보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편의성이나 친숙성에 의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은 본인의 자녀에게 국한된 주관적인 경험에 한정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녀의 문제행동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물론 가까운 주변인의 이전 양육 경험이 이미 지식화된 정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개별 자녀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고려할 때 주변인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한 지식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이주연, 한석호, 2010). 따라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선택했다는 것과 선호하는 부모교육의 강사로 부모교육 전문가를 첫 번째로 선택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보았을 때 주변인으로부터 얻는 정보만으로는 자녀 훈육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부모교육 강사로 전문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것은 선행연구(김옥경, 최인화, 2013; 박수진 외, 2018)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교류할 수 있는 교사를 영·유아 교육 전문가로는 인정하지만,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양육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배지희 외, 2015). 따라서 주로 단기 교육과정과 온라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현행 보육교사 양성체계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및 부모 상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부모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

부모교육 방법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 부모교육의 횟수는 1년에 1-2회, 또는 한 학기에 1-2회가 적당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수진 외(2018)의 연구와 정영희(2016)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결과이다. 선호하는 부모교육의 참여형태는 오프라인 교육이 가장 많았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도 36.6%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스마트 교육의 저변 확대를 반영한 시대의 변화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 병행에 대

한 선택이 많아진 이유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즉, 비대면 수업 전환에 따라 어머니들이 자녀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경험하면서 부모교육의 경우에도 온라인 교육이 병행되었을 때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책자나 가정 통신문 같은 인쇄매체의 전달은 많은 영·유아교육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다(김옥경, 최인화, 2013; 남지영, 정혜원, 2016).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선호하는 부모교육 유형으로 전체 응답자 205명 중 단 3명만이 인쇄매체의 전달을 선택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부모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계획 사전 요구조사 단계에서 부모들이 선호하는 유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부모교육 방법은 가정 통신문과 같은 인쇄매체 자료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모교육 전문가의 초청 특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수진 외(2018)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전문가 초청형태의 부모교육 이외에도 교사는 전화 상담이나 등·하원 시 짧은 면담을 통해서 가장 많이 부모와 접촉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부모들이 경험했던 부모교육의 유형은 교사와의 학부모 상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는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적절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육 또는 훈육방법 등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남지영, 정혜원, 2016).

또한 어머니들은 선호하는 부모교육 외부기관으로 지원센터(47.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실제로 부모들은 영·유아교육기관 이외에 부모교육 관련 정보를 얻는 곳으로 여성문화강좌, 보건복지부, 보육정보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기관인 경우가 많다(김옥경, 최인화, 2013). 따라서 영·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영·유아 관련 지원센터 간의 협력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영·유아교육기관, 주민센터, 지역 도서관 및 지역 자치 단체에서 직접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다. 부모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직접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들을 만나 정보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자주 제기되는 문제는 참가한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질 높은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가 공유될 수도 있다(Harrison & Vliet, 2013).

3.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어머니들은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및 훈육방법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바람직한 부모역할 및 훈육방법에서 알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모의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과 일관된 양육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많았고, 아이들의 생활습관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생활지도 방법과 자녀의 나쁜 행동 및 잘못된 습관에 대한 지도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 발생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표현하는가에 따라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감정 통제 능력은 부모가 자녀야 할 때 매우 중요한 역량이며, 이러한 부모의 감정 통제는 훈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정계숙, 차지량, 김미나, 2019; 정미선, 윤경희, 2015; 차지량, 2021). 또한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역시 부모교육 내용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녀와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은 의사소통의 의도이거나 원하는 사물 또는 특정 행동에 대한 욕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행동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나 세련된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할 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Tiger, Hanley, & Bruzek, 2008). 자녀가 보이는 행동을 그저 부모의 기준에서 벗어난 문제행동으로만 인식하여 무분별한 타임아웃, 체벌, 잔소리, 소리 지르기 등과 같은 혐오적인 자극으로만 대처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은 채 문제적 상황이 악순환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익혀 훈육에 임한다면 아이들의 문제행동은 감소할 것이고, 부모-자녀 간의 갈등도 해결됨으로써 부모 스스로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져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는 물론 자녀와 부모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또한 부모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자녀의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자녀의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근간이 된다(오영순, 안연경, 2013). 따라서 자녀의 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이나 훈육방법에 대한 기술적 차원의 내용을 실제적이고 특징적인 상호작용의 방법으로 제안해 부모들의 양육기술을 도울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경미, 심성경, 2015).

어머니들이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 1순위는 사회 및 정서 발달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곤란한 점이 대체로 정서·사회성 발달과 관련한 것이었다고 보고한 연구(박경숙, 2010)의 결과와도 맥을 함께 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서 발달이 영·유아 발달 영역 중에서 중요한 영역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의 감정과 정서를 잘 이해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정서조절과 정서활용능력이 높다(양수영, 2019). 이때에도 부모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타인에게 도움 주거나 접근하기, 나누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감정이입 및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은희, 2019).

한편, 자녀의 건강 및 영양, 안전관리에서 알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전사고와 응급처치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영·유아기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시기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이들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이혜경, 이재연, 2005). 그러므로 영·유아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는 물론, 위험요소의 예측 및 예방 등과 같은 안전지식과 태도는 부모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따라서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자

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부모와 함께 공유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과 유아교육 기관이 연계한 실천적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영·유아교육기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사들의 안전지식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안전교육 실행 방법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배지희, 권경숙, 이사임, 이미선, 2015; 최윤정, 안소영, 원윤서, 2018). 또한 영·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을 연계한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가 부모와 함께 직접 경험해 보는 반복적인 생활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도 보고되고 있다(채영란, 2016).

또한 본 연구결과 어머니들이 부모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과 부모교육 내용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기관이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여 반영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부모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일방적 주도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김주연, 2019), 실제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다섯 개의 교육기관 중 네 곳에서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교육을 계획할 때 내용 구성을 위해 부모를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교육기관도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남지영, 정혜원, 2016).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이다. 이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분석 등 연구방법을 적용한 후속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의 수집이 특정 지역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전국단위의 부모를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녀 훈육이나 문제행동 지도와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경미, 심성경 (2015). PSWS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어머니-유아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7(3), 83-106.
- 고경필 (2017). 유아기 부모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4), 433-459.
- 김옥경, 최인화(2013). 가정 어린이 집의 부모교육 실태와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2(1), 1-26.
- 김정주, 이미영, 이현옥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 **열린부모교육연구**, 5(2), 35-48.
- 김주연 (2019). 유아기 어머니가 경험한 부모교육의 현실태 및 요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185-205.
- 남지영, 정혜원 (2016). 가정어린이집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요구 및 활성화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4(21), 29-53.
- 도미향(2016).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21(4), 725-744.
- 박경숙 (2010).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유치원생 어머니들의 훈육행동 유형과 자녀양육 방식의 변화.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이경희, 조미경, 권이정(2018).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와 원장의 인식 비교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20(2), 95-116.
- 방은주(201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지식,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3(2), 61-81.
- 배지희, 권경숙, 이사임, 이미선 (2015).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 실제와 교사의 어려움 및 요구. **유아교육연구**, 35(4), 223-248.
- 배지희, 이유희, 임미선(2015). 자녀의 문제행동 관련 부모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의 경험과 요구, **유아교육연구**, 35(5), 475-497.
- 양수영 (2019). 부모의 유아발달, 양육지식 및 강압적 훈육에 대한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123-143.
- 오영순, 안연경 (2013). STEP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들의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지**, 17(1), 77-96.
- 이영은, 이경화 (2013). 영아발달수준에 대한 부모의 지식 인지도, **Global Creative Leader**, 3(1), 37-52.
- 이완희, 최양미 (2009). 영유아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09. **열린부모교육연구**, 1(2), 87-109.

- 이원영, 배소연(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아동학회지**, **21**(2), 17-31.
- 이은희 (2019).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및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347-371.
- 이주연, 이석호 (2010).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정보 습득과 양육지식. **한국아동학회지**, **31**(4), 179-197.
- 이혜경, 이재연 (2005). '위험'에 대한 아동의 이해. **한국영유아보육학**, **17**, 181-201.
- 정계숙, 차지량, 김미나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역량과 분노 표현과의 관계: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2), 37-57.
- 정미선, 윤경희 (2015). 교류분석이론에 근거한 부모의 분노조절 프로그램 효과: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7**(3), 1-20.
- 정영희 (2015). 직장어린이집의 특별활동 및 부모교육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1), 64-88.
- 지성애 (2016). 유아기 부모교육의 중요성. **열린부모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16**, 1-28.
- 차지량(2021).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분노 조절 능력 향상을 통한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CPRT와 AL의 통합적 접근, **미래유아교육학회**, **28**(2), 79-114.
- 채영란 (2016). 유아교육기관-가정을 연계한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653-678.
- 최윤정, 안소영, 원윤서 (2018).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어린이집 안전교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열린부모교육연구**, **10**(2), 205-228.
- Bandura, A. (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In: Pajares, F. and Urdan, T.S.,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Age Information Publishing, Greenwich, 307-337.
- Harrison, C, Vliet, V. H (2013). Learning Together: An Innovative Parent Education Project to Facilitate Children's Learning, Wellbeing and Resilience. *International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4**(1), 35-52.
- Tiger, J. H., Hanley, G. P., & Bruzek, J. (2008).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A review and practical guide. *Behavior Analysis in Practice*, **1**(1), 16-23.

A Study on Mother's Needs for Parent Education in Daycare Centers

Hyun-Ju Park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status of mothers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s participation in parent education, how parents want to participate in parent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parent education. The study subjects were 209 mothers with infants attending a daycare center in D Metropolitan City. The questionnaire used in the study consisted of 16 question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responded that parental education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infant development by age and to acquire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parenting. They also responded that they find it difficult to raise their children when they do not know the right way to discipline and the role of parents. Parents responded that they refer to expert advice the most when raising their children. Second, the appropriate number of parental education desired by parents was 1-2 times a year, and the preferred type of parent education was a special lecture by experts. Also, parents' preferred instructor was a parent education expert. Third, parents most wanted the role and discipline of parents as a content of their parents' education. Specifically, they wanted to know how parents controlled their emotions and disciplined them continuously. And they also wanted to know about child-rearing knowledge, how to communicate well with children, their social skills and emotional development.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esent the direction of parent education program construction.

Key words : daycare center, parent education, parent' need